

原子力協力에 관한 共同聲明

EC 회원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벨기에
4개국은 3월 25일 원자력
이용 및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1991년 3월
25일 채택했다.
이 선언은 4개국의
원자력담당 각료들의
회합후에 발표된 것으로
EC의 에너지시장 통합을
앞두고 원자력에너지
공급과정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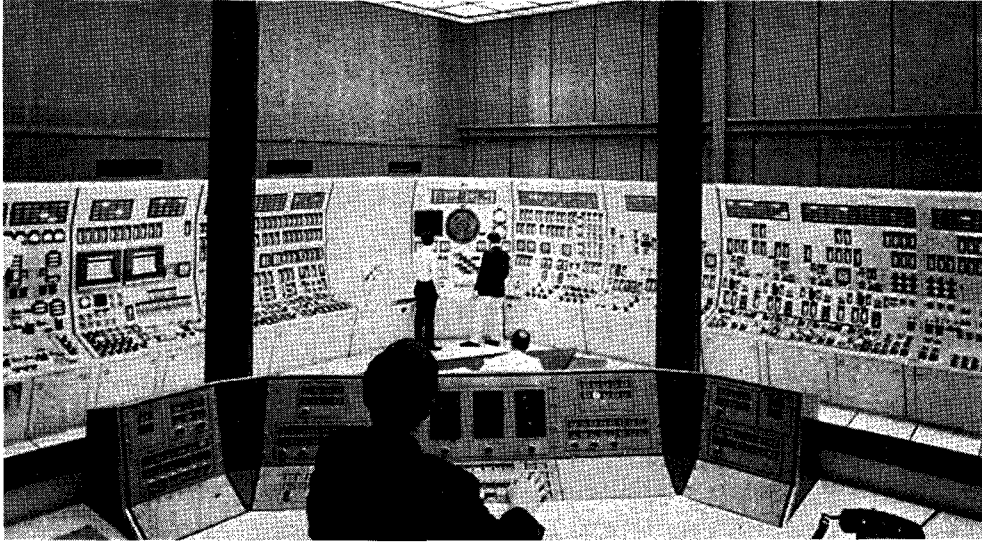
우리는 평화이용을 목적으로 한 원자력협력에 관해 아래 사항을 협의했다.

- 우리의 에너지 균형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율.
- 에너지원의 다양화, 즉 유럽의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중.
- EC 지역내에서의 지금부터 200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원자력에 의존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발전에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유럽과 세계의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위의 사항에 대해 우리는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높은 대체에너지의 개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은 연료의 보다 적극적인 사용과 병행되는 원자력의 이용 등이 일반시민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최대한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환경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본다.

고도의 원자력안전을 원자력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전시에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이념이다. 원자력안전문제는 한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실현가능한 방사성폐기물의 장기저장법은 국민적 합의(PA)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시설의 설계, 건설, 운전 및 보수의 각단계에서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에 대해 각국이 책임을져야 한다는, 1986년의 일본 도쿄에서의 성명에 명시된 원칙을 고수할 것을 약속한다.

또 우리는 자국에 원자력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전세계, 특히 유럽제국에 대해 책임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의의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미 EC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관(OECD·NEA)에서 이루어진 작업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각기관과 함께 건설적인 공동작업을 펴 안전성문제에서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2국간 협력을 발전시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원자력분야에서 2국간 협력범위를 더욱 확대해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작업을 해나갈 것을 희망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고도의 원자력안전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폭넓은 전문가수준에서의 교류에 의해 각 참여국에서의 안전규칙의 적용 및 시행에 관해서도 차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체제를 확대하도

록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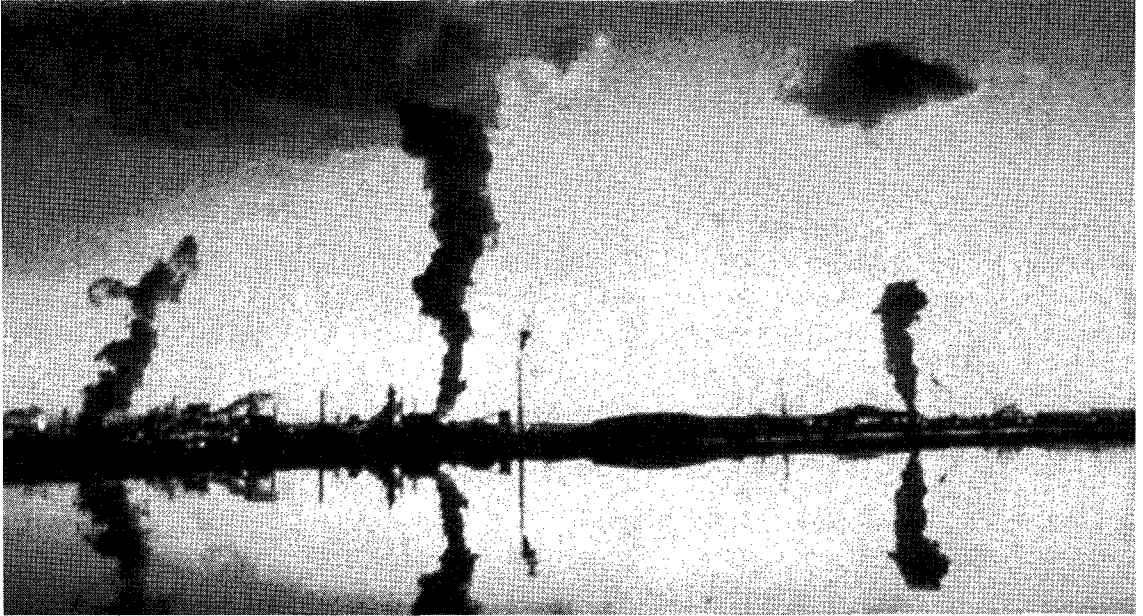
- 연구, 규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4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각국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목표 및 그 달성수준의 격차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1975년 7월 22일의 각료회의 결의 및 이에 뒤따르는 제반 결정의 정신에 따른 것으로 각국간의 안전규칙 평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원자력발전소 운전상황에 관한 4국간의 정보교환을 강화한다.

- 모범적인 작업방법 보급을 위해 공동감정을 더욱 촉진하는 동시에 각국 안전당국의 직원출장이나 교환방문을 계속한다.

- 원자로의 운전과 신형 원자로의 설계에 관해서는 발전사업자, 건설업자, 연구개발기관간에 이미 확립돼있는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 강화한다. 우리는 각국의 정부 및 안전당국은 이 협력관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이에 필요한 각기관간의 연락을 촉진한다. 원자력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고 또 이것이 통합 에너지시장을 실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 연료주기는 원자력계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각국의 공통과제임을 감안해 관계기관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사용자



연료 처리, 폐기물관리, 원자력시설의 폐쇄조치와 같은 최종단계에 대해 우리는 공동의 책임과 관심을 갖는다. 방사성폐기물처리방법 확립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최고수준의 안전성과 환경보호를 전제로 한, 최고의 기술을 규정해서 이를 실현할 의지가 있음을 새삼 확인한다. 우리는 긴밀한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 작업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길임을 확신한다. 지금까지의 각국의 폐기물관리기관 사이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데 힘쓴다.

• 동유럽제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수준을 EC회원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들 나라들에 대한 원조에 전력을 다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사업자, 건설업자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지원이 전제되므로 각국정부 및 각국제기관에 의한 공동전략의 채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각국에서의 원자력안전상황을 항상 유지, 개선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에 다짐한다.

기존 및 신세대의 원자로에 관해 각국의 안

전당국, 연구개발기관, 발전사업자, 건설업자들 사이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EC 회원국간의 목표와 그 달성수준의 평준화가 가능해진다.

EC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EC 정책과 이 정책에 따라 원자력에 부과되는 역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책임을 지고 있고, EC 비회원국들로 하여금 이 공감대에 동참하도록 전력을 다 할 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안전성에 관한 매우 엄격한 요구를 자신들에게 부과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설정, 이를 이행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연결되는 것이다. 원자력을 이용하는 자의 책임으로 이들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본성명을 통해 안전한 원자력이 경제적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유리해 장래의 에너지수요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간의 협력은 물론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를 통해 작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이에 재확인한다.